



“홈으로”

‘최원준 1번 구하기’ 작전

KIA타이거즈 최원준이 지난 14일 KIA-롯데전 연장12회말에 3루 도루를 성공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롯데전 3-2 시즌 첫 끝내기 승... 4연패 마감 최원준, 1회말 선취점·연장 12회말 도루 승리 ‘수훈’ 윌리엄스 감독, 1번타자 부담 덜어주려 5번 배치 감독 배려 속 자신감 되찾아... 다시 원래 1번 복귀

‘최원준 1번 구하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4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3-2, 시즌 첫 끝내기 승을 거뒀다. 최원준이 KIA 공격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최원준은 1회말 2사 1-2루에서 좌중간 안타를 터트리면서 팀의 선취점을 만들었다. 2-2로 맞선 연장 12회말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

에 성공하며 승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류지혁의 번트로 2루로 간 최원준은 이창진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2루에서 허를 찌르는 3루 도루를 시도하며 상대 배터리로 흔들었다. 그리고 김민식의 좌익수플라이 때 홈까지 파고들면서 4시간 4분의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며칠 마음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았던 최원준은 모처럼 주인공이 돼 활짝 웃었다. 많은 이들의 노력

과 고민이 어우러진 활약이었다. 최원준은 이날 시즌 처음으로 5번 자리에 배치됐다. 1번 타자로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윌리엄스 감독의 구상이었다. 최원준은 경기가 끝난 뒤 “1번으로 나가면서 포볼도 많이 없었고, 부상도 있어서 쫓기는 부분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서 5번 타순에서 한번 쉬어가는 느낌이었다. 타이밍을 잡아가는 시간이 됐다”며 “안 좋다 보니까 1번 자리에서 생각이 많았다. 안 좋은 데 타석은 많이 들어가니까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 같다”고 5번 자리에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15일 경기에 앞서 가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최근 잘 안 맞다 보니까 최원준이 실망스러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는데 경기를 잘 해준 것 같다”고 평

가했다. 최원준 구하기 작전에는 타격·주루 코치는 물론 배터리 코치의 노력도 있었다. 최원준은 “안 맞다보니까 처져 있기도 했는데 송지만, 최희섭 코치님이 작년에 많은 걸 느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고 다잡아주셨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경기에 나섰다”며 “또 스타일이 한번 안 되면 악순환이 이어지는 스타일인데 진갑용 코치님 말씀도 도움이 됐다. 진갑용 코치님이 (삼성) 배터리 코치로 계실 때 내가 잘 못 쳤다. 맨날 잡는 것도 이야기해주시고 어느 공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것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볼배합 이야기해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진다”며 자신 있는 주루를 주문한 김종국 코치도 최원준에게는 큰 힘이 됐다. 최원준은 “전에도 그렇게 끝내기 한 장면이 있었

는데 김종국 코치님이 그린 라이트니까 자신을 믿고 뛰라고 늘 말씀해주신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뛰려고 했다”며 “창진이 형 타석에 시도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과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민식이 형 타석에서는 과감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했다. 12회말이라 비켜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식이 형이 플라이를 쳐줄 수 있는 콘택트 능력이 있는 선배라서 3루에 들어가게 되면 희생플라이로 끝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도루를 했다. 그 결과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도루 상황을 설명했다. 팀의 연패 상황에서 더 무거웠던 1번 타자의 역할. 세밀한 기용과 자신감을 불어넣은 응원 속에 ‘최원준 1번 구하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최원준은 1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다시 원래 자리인 1번으로 복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新 수호신’ 정해영

지난주 키움과 연장 2이닝 퍼펙트 수요일 롯데전 2.1이닝 무실점 어려운 상황 팀 구하고 시즌 2승 “나 자신 믿고 공격적으로 승부”



빠른 승부를 앞세운 정해영이 KIA 마운드의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됐다. 고민 많은 KIA 마운드에서 정해영은 믿음직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지난 6일 키움전에서 연장 10회 등판해 2이닝 퍼펙트로 5-4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던 정해영은 다시 연장전이 전개된 7일에는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팀의 연패로 마운드 등판 기회가 없었던 정해영은 13일 롯데를 상대로 6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감을 조절했다. 그리고 14일에는 다시 2-2의 긴박한 승부에서 역할을 맡았다. 10회말 2사에서 마운드에 투입된 정해영은 볼넷으로 경기는 시작했지만 2.1이닝을 피안타 없이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자신의 역할을 완수한 정해영은 12회말 나온 김민식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이렇게 빨리 2승을 할지 몰랐다”며 웃은 정해영은 “집중해서 추운 줄도 몰랐다. 그 전 경기에서 야수들이 추운 날씨에 수비를 많이 했다. 수비 많이 하면 몸도 굳고 하니까 점수를 주더라도 수비 빨리 끝내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수비 빨리 끝나면 야수들이 점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KIA 셋백로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정해영은 빠른 승부를 이야기한다. 정해영은 “맞으려면 빨리 맞자는 생각이다. 아직 힘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지난 시즌 마지막에는 힘이 없었으니까 도망가고, 그렇다 보니 주자도 많이 쌓이고 투구수도 많아졌다. 그때 많이 배웠다. 빨리 승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번에 (김)현수, (이)승재형과 윤석민 선배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선배님이 우리가 타자랑 안 싸우고 자신처럼 싸운다고 이야기

를 해줬다. 타자들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자신을 믿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해영에게는 기대되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KIA는 16일 문학으로 올라가 SSG 랜더스와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빅리거 추신수와의 승부는 팬들은 물론 정해영에게도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정해영은 “경기에서 만나면 많이 신기할 것 같다. 메이저리그에서 탑 클래스였던 선수인데 승부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다(웃음)”며 “직구에 힘이 있으니까 직구로 볼을 생각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배구 챔피언’ 승부 원점으로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V리그 배구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4차전 경기에서 대한항공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우리카드와 4차전 3-0 승리... 내일 인천서 최종전

대한항공이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갔다. ‘토종 라이트 임동혁·외국인 레프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 카드’를 꺼낸 대한항공은 ‘구단 첫 통합우승’ 가능성을 되살렸다. 반면 우리카드는 외국인 공격수 알렉산드리 페헤이라(등록명 알렉스)가 구토를 동반한 복통으로 난조를 보여 홈에서 창단 첫 우승 세리머니를 할 기회를 놓쳤다. 대한항공은 15일 서울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챔피언결정 4차전에서 우리카드를 세트 스코어 3-0(25-23 25-19 25-19)으로 꺾었다. 1, 3차전을 우리카드에 내준 대한항공은 2차전

에 이어 4차전을 때내며 5전3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양 팀은 16일 하루 쉬고, 17일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의 홈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5차전을 벌인다. 17일에는 2020-2021 V리그 남자부 챔피언이 결정된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1승 2패로 베팅 끝에 몰린 대한항공은 1~3차전에 활용한 라이트 요스바니, 레프트 정지석·곽승석 조합 대신 라이트 임동혁, 레프트 요스바니·정지석 카드를 꺼냈다. 높이와 공격력에 무게를 둔 선수 기용이었다. 산틸리 감독은 허리 통증을 느낀 센터 진성태 대신 레프트 자원인 손현중을 센터로 기용하는 모험도

택했다. 임동혁은 57.69%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며 18득점 했다. 정지석은 블로킹 득점 4개를 포함해 18점을 뽑았고, 요스바니도 두 자릿수 득점(11점)을 했다. 우리카드는 경기 직전, 알렉스가 구토를 동반한 복통을 앓는 악재를 맞았다. 신영철 감독은 2세트부터는 알렉스 없이 토종 선수로만 경기를 치렀다. 알렉스의 공백은 컸다. 나경복(16점·공격 성공률 48.14%), 한성정(12점·52.17%)이 분전했지만, 알렉스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우리카드는 21-24에서 상대 범실로 23-24까지 추격했지만, 알렉스의 서브가 네트에 걸려 허무하게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부터는 접전조차 벌어지지 않았다. 주포 알렉스가 빠진 우리카드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다. 대한항공은 3세트 초반에 사실상 4차전 승부를 결정지었다. /연합뉴스